

관광 분야 국제기구 근무 희망 청년 50명, 취업 실무교육 수료

- 9. 18.~19. ‘국제관광기구 취업 실무교육’ 성료, 관광 분야 전문가와 국제기구 현직자 참여해 지식과 경험 전달
- 영문 이력서 작성과 영어 인터뷰 교육, 국제기구 취업 전략 등 제공, 모의 관광 국제기구 회의로 국제 관광 의제 발굴

관광 분야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 50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9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진행한 ‘국제관광기구 취업 실무교육’을 수료했다.

관광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와 국제기구 현직자들이 강사와 상담자로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세계 관광 동향과 관광 분야 국제기구 업무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의 구직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했다.

먼저, 첫째 날(9. 18.)에는 방송인 파비앙이 특별 강사로 참여해 다문화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관광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어 강원석 시에이치시(CHC) 취업컨설팅 대표가 영문 이력서 작성과 영어 인터뷰 등 실무 구직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의 국제관광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유엔관광기구(UN Tourism) 온라인교육위원회 출신 김대관 경희대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와 한국이에스지(ESG)경영개발원 홍은표 이사장(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국 선임분석관)이 각 기구의 특성과 주요 의제 등에 관한 강연도 펼쳤다.

현재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유엔관광기구(UN Tourism) 태은지 아태지역담당관과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천은규 담당관이 상담자로 참여해 국제관광기구 근무를 위한 준비 과정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전략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이튿날(9. 19.)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조를 이루어 ‘관광 분야 디지털과 인공지능 활용’, ‘관광의 지속가능성’, ‘관광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국제 관광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논의하는 ‘모의 관광 국제기구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10월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유엔관광기구(UN Tourism)에서 9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인 이서영, 김현지 학생은 근무를 앞둔 소감과 인턴 합격 비결을 공유했다.

현직자의 구체적 조언과 모의 국제회의 방식 큰 도움, 지방 학생 교통과 숙박 지원 이어지길 기대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학과 3학년 김태이 학생은 “국제기구 현직자를 직접 만나 궁금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4학년 최차민 학생은 “관광 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모의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회의의 진행 방식 등을 경험해 볼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했다. 선문대학교 테솔(TESOL)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아리아나 간 치아 스웬 학생은 “지방에서 듣기 어려운 교육인데, 지방 학생들에게 특별히 교통과 숙박을 지원해 주는 등 지방 학생을 섬세하게 배려해 줘 좋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방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의 관광산업과 관광 분야의 국제적 의제(어젠다)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진로와 취업에 관한 생생한 고민과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여행업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관광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관광정책실 국제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진희 (044-203-2871)
		담당자	사무관	박동은 (044-203-2876)

